

서울시민 24% 1차 백신접종 완료... 2차 완료자 6.1%

총 231만명 접종... 2차는 59만명
백신물량 총 58.4만회분 남아
이상반응 총 948건... 98% 경증

서울시는 시민의 약 24%가 코로나 19 1차 예방접종을 완료했다고 15일 발표했다.

시에 따르면 15일 0시 기준 1차 예방접종을 마친 시민은 230만9534명이다. 이는 관내 거주 인구수(960만명)의 24.1%에 해당하는 수치다. 2차 접종까지 끝낸 시민은 58만9320명(6.1%)으로 집계됐다. 14일 신규 접종 인원은 1차 14만5519명, 2차 5만2848명으로 총 19만8367명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백신 물량은 아스트라제네카 33만 9600회분, 화이자 15만2358회분, 안센 9만2520회분 등 총 58만4478회분이 남은 것으로 파악됐다.



1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검체 채취를 하고 있다. /뉴스1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의심돼 신고된 사례는 14일 기준으로 신규는 600건이고, 누적은 7948건(접종자의 0.3%)이었다. 이상반응 신고 중 97.8%가

근육통, 두통, 발열 같은 경증 사례였다고 시는 설명했다.

박유미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통제관은 “최근 노인복지시설 운영이

재개되고 학교 등교 확대와 스포츠 경기장 등의 방역수칙 완화로 각종 활동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모두의 안전을 위해 예방접종을 완료했다라고 집단 면역이 형성될 때까지는 마스크 착용, 충분한 환기, 유증상시 검사받기 같은 방역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시는 자가검사키트 시범사업을 통해 지난달 17일부터 이달 14일까지 총 12만5657건의 검사를 수행, 6건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고 이후 PCR검사를 실시해 최종 확진된 사례는 3건이었다고 밝혔다.

박 방역통제관은 “3건 모두 콜센터 종사자였다”면서 “오는 18일 자가검사키트 시범사업이 완료되면 위양성, 위음성 사례 등을 포함한 시범사업 효과를 분석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7월부터 적용하는 사

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6월 20일 공개하겠다고 이날 예고했다.

정부가 새로운 거리두기 지침을 준비함에 따라 서울형 상생방역이 실제 운영되는 기간이 3주로 짧다는 지적에 박 방역통제관은 “중수본(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서울형 상생방역에 대한 시범사업 결과를 충분히 참고하겠다는 의견이 있었다”면서 “기간이 짧고 범위도 축소된 부분이 있지만 서울형 상생방역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국가에서 하는 새 거리두기 지침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앞서시는 지난 10일 강동-마포구의 체력단련장과 실내골프연습장의 영업시간을 기존 밤 10시에서 자정까지로 2시간 연장하는 내용의 시범사업을 이달 12일부터 한 달간 벌인다고 발표한 바 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성실 채무상환 소상공인에 보증료 지원

서울신보, 1인당 최대 100만원 이내
한국증권금융꿈나눔재단서 1억 기부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한국증권금융꿈나눔재단은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했지만 전액 변제에는 이르지 못한 일명 ‘성실 실패자’가 재기할 수 있도록 ‘보증료’ 지원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채도전지원특례보증’ 상품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이다. ‘채도전지원특례보

증’은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보증으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가운데 신용회복, 개인회생 등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채무 중 일부를 성실하게 상환한 소상공인이 다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해주는 상품이다.

이때 보증료는 1인당 최대 100만원 이내, 100명 이상에게 한국증권금융꿈나눔재단이 지원한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재기를 돕기 위해 한국증권금융꿈나눔재단이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총 1억원을 기부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은 보증료 지원을 받는 대상자들에게 다시서기를 위한 종합 프로그램도 지원한다. 보증료 부담 없는 채도전지원특례보증 지원과 더불어 채도전 교육과 맞춤형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하고, 일대일 밀착 사후관리를 해준다.

이와 관련해 양 기관은 이날 오후 3시 서울신용보증재단 본점에서 성실실패자의 채도전 지원을 위한 ‘채도전지원특례보증’ 보증료 지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김현정 기자

서울시, 노인보호전문기관 4개 권역 확대

남·북·서부 이어 동부권서 운영

서울시는 노인학대 대응을 전담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을 4개 권역으로 확대한다고 15일 밝혔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학대 신고·조사부터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담당하는 시설로 현재 서울 남부·북부·서부 권에 각 1곳씩 총 3곳이 운영되고 있다.

시는 올해 동부권에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추가로 만들고 4개 권역별 체계를 갖춰 보다 촘촘한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해당 시설이 동부권에도 생기면 기관당 담당 자치구가 종전 8~9개에서 5~7개로 줄어 체계적·효율적 학대예방 활동이 가능해진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하반기 중 노인보호전문기관을 공개 모집한 뒤 심의위원회를 거쳐 수탁 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다.

아울러시는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학



2021년 노인학대 예방의 날 기념 노인인권 사진전 자료 사진. /서울시

대를 막기 위해 노인보호전문기관,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간 협업 체계를 구축, 사례를 관리하기로 했다. 기관이 신고 접수된 사례 중 재학대 위험이 높은 가구를 선별하면 어르신 재가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가 해당 가구의 이상징후를 모니터링하게 된다. /김현정 기자

“특례시에 대학설립 권한 이양돼야”

고양시, 특례시 출범 앞두고 주장

내년 1월 특례시로 출범을 앞두고 있는 고양시가 특례시 대학 설립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고양시(이재준 시장)는 지역의 교육 경쟁력 강화 및 양질의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해 특례시에 대학 설립의 권한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15일 밝혔다. 현재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는 과밀억제권역에서의 대학 신설을 금지하고 있다. 「고등교육법」 제3조에서는 학교의 설립을 국가 및 광역시급의 권한으로만 한정하고 있다. 특례시에 대학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권한이 이양되면 고양시에서도 대학을 설립할 수 있게 된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관내 여러 유수의 대학이 있는 수원, 창원과 달리 고양시는 4개의 대학교(한국항공대·농협대·중부

대학교 고양캠퍼스·동국대학교 바이오메디칼캠퍼스)만 있다”면서 “고양시 내 부족한 대학 수요를 충족하고, 인적자원 양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대학-지역사회 간 상생 발전하기 위해서는 대학의 설립 및 운영에 대한 권한까지 함께 이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례시에 대학설립에 대한 권한이 이양될 경우, 무엇보다 109만 고양시민이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졸업생 배출로 인해 고양시 지역의 평균 교육수준이 증가하고, 취업자 배출에 따른 경제적 가치도 유발된다.

고양시에서는 경기고양방송영상밸리·고양일산테크노밸리·CJ라이브시티·IP융복합콘텐츠클러스터 등과 연계된 지역특성에 맞는 양질의 맞춤형 대학을 설립할 수 있다. /경기=안성기 기자 ask9990@

1분기 자동차세 2033억 서울시, 고지서 일제발송

서울시는 시에 등록된 차량 180만대를 대상으로 2021년 1분기 자동차세 고지서를 납세자들에게 일제히 발송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시에 따르면 올해 1기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2033억원이다. 1분기 자동차세는 2021년 1월부터 6월 30일까지의 소유기간에 대한 세금이다.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 등록했거나 이전 등록 및 폐차 말소 등을 한 경우에는 소유기간 만큼만 내면 된다.

납부 기한은 이달 30일까지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금 3%를 추가로 내야 한다.

이번에 송달받은 자동차세는 ▲서울시 ETAX 홈페이지 ▲서울시 세금납부 앱 STAX ▲간편결제사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신한페이판) ▲종이 고지서 QR바코드 ▲전용계좌 ▲은행 현금 인출기(CD/ATM) ▲무인공과금기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김현정 기자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5:10 | 해질 / 19:55

6월 16일 (수)
음력 : 5월 7일

수도권 날씨
20~29°C

운동 지수: [Progress bar]

빨래 지수: [Progress bar]

세차 지수: [Progress bar]

외출 지수: [Progress bar]

지역별 날씨: 연천 17/29, 동두천 17/29, 가평 17/27, 파주 18/28, 서울 20/29, 양평 19/29, 수원 20/29, 용인 20/29, 백령도 17/25, 인천 20/28, 평택 19/28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뉴스비타민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미 1~5월 하루 총격 사망자 54명...다가오는 여름 우려
▲“동성애 논의 금지”...헝가리, 성소수자 차별 법안 논란 /사진 뉴스1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CEO “미 5월 국내 여행, 95% 회복”
▲CNN, NYT 등 미 언론사들, 트럼프의 언론인 내사에 항의



▲中 광둥성 코로나 확산...세계 물류대란 우려
▲日방위상, 한국 독도 훈련 “도저히 수용할 수 없어” /사진 뉴스1